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7 Number 11 11 2019

종교, 철학, 세계관, 역사과학, 진화론

종교

이 세상에 종교(religions)가 없는 나라는 없다. Wikipedia를 참고하자면 지구상에 약 4,200개의 종교가 존재한다고 한다. 왜 모든 나라는 종교를 갖고 있을까? 종교란 '규정된 믿음을 공유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와 그들이 가진 신앙 체계나 문화적 체계'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없이 영적인 것을 채우려는 시도가 종교이며, 즉 자신들 '스스로 만든 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종교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신념에서 시작하고 신념으로 발전한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인데,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영적인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볼 때 종교나 우상이나 차이점이 없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온 인류의 역사가 성경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만이 분명히 이해될 수 있다. 즉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홍수 심판 때 방주에 탔던 노아의 후손이며, 그 조상은 성경의 하나님이 창조자이시

며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었던 분들이다. 그러나 바벨탑 이후 언어의 혼돈으로 각 민족이 형성되었으며 이후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후손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이전의 역사는 단 한 세대만 전달이 되지 않아도 혼자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인지, 죄로 인해 사망이 왔는지, 또한 처음 창조했을 때 상황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칠 일이라는 주기가 생겼는지… 하나님(God)을 잊어버리자 이들은 종교를 만들었다. 모두가 자신이 만든 신들(gods)이다.

죽은 조상이 무엇인가 해줄 것으로 믿기도 하고, 나무, 돌, 태양, 동물과 같은 피조물을 신성시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직접 만든 것에 예배하게 되었다. 참으로 어리석어진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롬 1:22–23)라고 지적한다. 어떤 경우는 독특한 금욕적인 삶을 강조하며 그런 행위로 복을 받고 내세도 보장받는다고 가르친다. 모두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며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교나 우상은 동일한 것이다.

철학과 세계관

철학(philosophy)은 '세계와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 원리 즉 인생관, 세계관 등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한다. 철학자들은 기존에 보편화된 사고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보편화시키기도 한다. 비슷한 용어로써 세계관(worldview)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단어 자체가 말하듯 세계를 보는 관점이며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로 표현한다. 한쪽은 학문이라 하고 다른 한쪽은 방식이라 말할 뿐 모두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없으며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철학이나 세계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느 나라나 하나님을 떠난 후에는 철학이 발달해왔다. 바벨탑 이후에 흩어지며 각 나라는 종교와 함께 철학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고대철학들이 바로 이것이다. 자신의 진짜 역사를 잃어버리자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알려고 시도한 것이다. 각 나라에서 종교가 일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게 철학 또한 함께 구축되기 시작했다. 모두 자신들의 신념에서 나왔기 때문에 종교나 철학은 아주 밀접하며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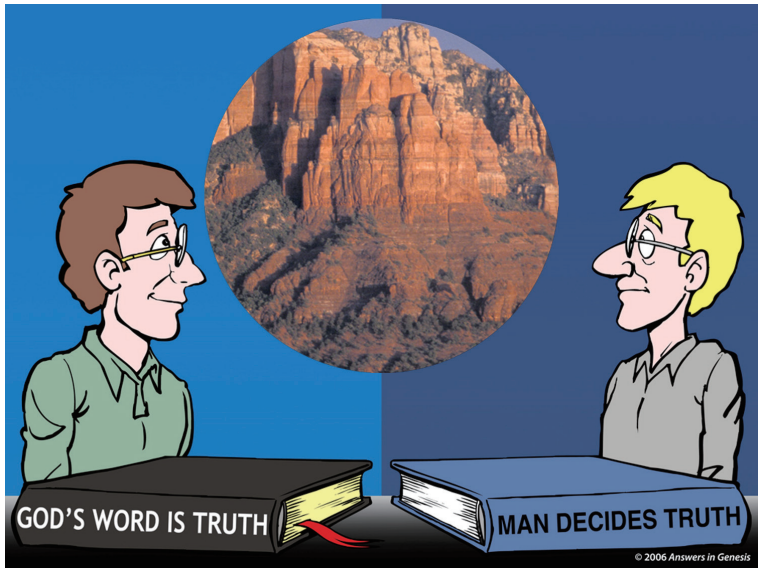
예수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성경이 전파되는 곳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다. 특별히 먼저 전파된 유럽이 그랬다. 교회가 세워지며 자신의 근본을 찾게 되었다. 그랬던 유럽은 중세 시대 말에 교회가 타락하자 '교회 밖'에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시도가 일기 시작했다. 17세기부터 시작한 계몽주의 시대가 들어선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교회가 아닌 철학자에게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결국, 또다시 철학 시대가 도래했다.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등장했던 철학 시대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성경은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사 29:14)라고 하시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한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헬라 철학으로 가득 찼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한다. "지혜자… 선비…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전 1:20)고 하며 사람이 스스로 알려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련한가를 경고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외한 철학이나 세계관도 모두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역사과학(historical science)

역사과학은 '현재의 과학 방법을 통하여 과거에 일어난 일을 추적하는 분야'이다. 이는 누구도 과거의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직접 조사할 방법이 없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단지 과거일 뿐이다. 이는 진화 과학자나 창조 과학자나 차이가 없다. 두 과학자 모두에게 지층, 화석,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 동물 등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데이터들은 과거에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관찰, 실험, 반복, 확인 등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선 기본 가정에서 출발해야 하며 대부분 증명할 수 없는 추측과 신념이다.

진화 과학자에게는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무생물에서 간단한 생물로, 간단한 생물에서 복잡한 생물, 결국 사람까지 진화되었다는 기본 가정이



있다. 반면 창조 과학자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생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후에 전 지구를 쓸어버렸다고 하는 성경에 의한 기본 가정이 있다. 그리고 창조 과학자들은 종류에서 종류로의 불가능(생물학적 증거), 전이 단계 화석의 부재(지질학적 증거), 유전정보 획득의 부재(유전학적 증거) 등을 통해 성경에 기록을 믿는 자신들의 가정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사 40:26).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 1:20). 우리는 지금 그분께서 피조물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진화론

종교, 철학, 세계관, 역사과학은 사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빼고 나왔을 때 모두 거짓된 방향으로 갔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가 각각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화론 역시 하나님을 빼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려고 해서 나온 것이다. 그런 면에서 거기 계셨던 하나님을 빼고 과거를 알려고 했을 때 나온 진화론은 종교이며 철학이며 세계관이다.

20세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진화론자 중 한 사람인 메이어(Ernst Walter Mayr, 1904–2005, 미국)도 진화론에 대한 역사과학으로써의 한계를 언급했다. "물리학이나 화학과 달리 진화 생물학은 역사과학이다. 진화론자는 이전에 발생한 사건과 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법칙과 실험은 과거 일어났던 일과 과정을 설명하기에 부적절한 기술이다" 미국에서 진화 과학 철학자로 대표적인 루즈(Michael Ruse, 1940–)와 코넬대학의 진화 생물학 교수인 프로비니(William Provine, 1942–2015)는 모두 진화론을 단순한 과학 이상으로 '무신론적 종교'라고 언급했다. (Michael Ruse, "Saving Darwinism from the Darwinians," National Post, May 13, 2000, p. B–3; William B Provine, Origins Research 16, no. 1, p.9, 1994)

기독교와 진화론, 이 두 종교는 양립할 수 없다. 유명한 진화론자 도킨스(Richard Dawkins, 1941, 영국)가 말했듯이 "진화의 이해는 무신론으로 이끈다" (Paul Johnson, "Where the Darwinian Fundamentalists Are Leading Us," The Spectator, April 23, 2005, p. 32)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초월자인 하나님이 6일 동안 완전하게 창조했다고 말하는 반면, 진화론은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도 없이 생명의 기원을 말한다. 성경은 그 완전한 상태가 첫 사람의 죄로 인해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현장에 들어왔다고 말하는 반면, 진화론은 오랜 세월 경쟁과 죽음

을 통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죽음, 질병 및 고통이 진화의 필수적인 원동력인 셈이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의 극치라고 하는 반면, 진화론은 아메바와 같은 단순한 생물에서 유인원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말한다. 성경은 언젠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할 사람과 그렇지 못할 자를 심판한다고 하는 반면, 진화론은 인간이 진화의 마지막이 아니며, 앞으로 멸종하거나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 종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위에 언급된 성경의 기록이나 진화론적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버린다면 우리가 스스로 상상해야 하므로 더 이상 하나님께 얽매일 필요가 없다. 어떻게 처음이 시작되었는지 마음대로 상상하게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 지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이 삶을 책임져야 하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세속 종교요, 철학과 세계관이요, 진화론이다.

성경은 세상의 지혜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어쩌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의 방법을 택하셨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이 방법은 정말로 훌륭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기막힌 방법 아닌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전 1:25).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ACT News

창조과학탐사
CGN TV 방영안내

창조과학탐사

온누리교회 여성 리더

지난 9/2-10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재훈) 여성 리더팀들이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와 부천 온누리교회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8박 9일간 풀코스로 창조-홍수심판-빙하시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며,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증거들을 보고 감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사회 진화론을 통해 진화론이 사회에 어떤 나쁜 열매를 남겨놓았고, 최근 한국에 일고 있는 많은 타협이론들의 비성경적인 내용을 확인하며 그 악영향도 확인했습니다.

뉴저지 실버미션

지난 9/11-16 뉴저지 실버미션(담당목사 김용철)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역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창탐을 마치며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진화론으로 가득 찬 미국의 다음 세대에 대하여 이 위기의 시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진화론뿐 아니라 동성애 등 현재 미국에 들어온 이슈들이 다음 세대를 교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뉴저지실버미션

뉴저지 초대교회

지난 9/17-20 뉴저지 초대교회(담임목사 박형은)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매년 창탐에 참석하는데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참석자

온누리여성리더

들은 성경에 대한 확신만이 아니라, 앞으로 창조과학 사역에 어떤 모습으로 기여를 할 것인지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뉴저지 초대교회에 이미 창조과학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활용해야 하는 지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지난 9/21 이재만 선교사는 주님의 영광교회(담임목사 신승훈)에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매년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순장들이 참여하여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고, 무엇보다 최근 교회 안에서 일고 있는 타협이론의 위험성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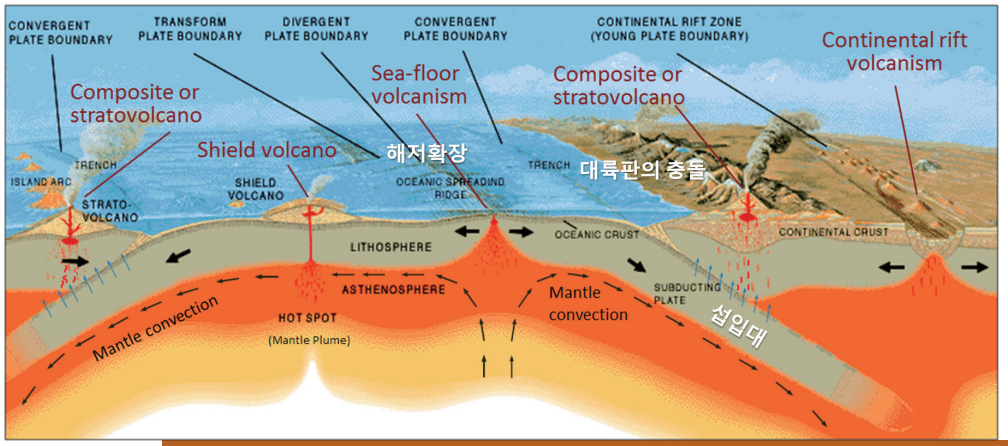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회

지난 9/27-29 이재만 선교사는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회(담임목사 손원배)에서 사흘간 기원에 관한 질문, 노아홍수와 지구나이, 진화론의 영향, 타협의 거센 바람의 네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진화론에 의한 교회 안팎의 영향을 다룬 '진화론의 영향'과 '타협의 거센 바람' 이후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60년대부터 진화론이 교과서에 들어간 후 미국의 사회적 변화, 세계대전, 이데올로기 등의 교회 밖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등장한 타협이론 내용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다룰 때 현재 각 교회가 겪는 심각한 현실을 공감했습니다.

뉴저지초대교회

창세기의 비밀을 풀다 (Unlocking the Mysteries of Genesis)- CGNTV에서 방영

한국의 CGNTV에서 지난 9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낮 1시(한국시각) <창세기의 비밀을 풀다>(Unlocking the Mysteries of Genesis) 시리즈를 매주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최근 미국창조과학연구소(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에서 12개의 DVD 시리즈로 제작된 명작입니다. 한국어 자막으로 방송됩니다. UMG는 각 22분 길이로 아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성경과 판구조론

섭입대나 대륙판의 충돌과 해저 확장 등은 모두 판구조론(Plate Tectonics)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그림). 공룡에 대한 주제를 생물학적 진화론으로 다루듯이 판구조론도 지질학적 변화가 수천만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맥락 외에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는 판구조론이란 학문이 1960년대에야 처음 시작했는데, 이때는 모든 지질학적 과정을 지구가 수십억 년이라는 사고 하에 점진적으로 해석하던 최고조의 시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는 세속적인 논문에서도 판구조론을 점진적 접근 방식으로 해석하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변화들이 일고 있다. 이 변화란 격변적 해석들을 의미하는데 이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홍수 심판 기간에 기초한 격변적 판구조론이다.

지구 표면은 딱딱한 지각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판을 이루며 움직이는데, 이들은 산맥, 해구, 화산 및 지진의 역사를 잘 드러낸다. 하지만 현재로써 판 움직임이 과거에도 오늘날과 같이 점진적으로 진행해왔는지, 아니면 격변적 사건을 통한 것인지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성경을 먼저 살펴보자. 성경은 아주 짧은 기간의 격변적 변화로 만들어진 역사를 말한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와 대홍수 사건에 대한 기록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창조와 대홍수의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는 과정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편견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베드로후서 3장 3–6절). 위의 성경 구절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현재로 과거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기록을 통해 현재를 아는 것'이 가장 쉽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을 근거 삼아 우리는 초기 지구의 상태가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all the fountains of great deep were burst opened)"의 홍수의 시작은 지각 변동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묘사되어 있다. 즉 대홍수가 시작된 시점에 기존에 존재한 해저가 하루만에 전 지구적으로 지질학적 결함이 발생한 것이다. 논란의 여지없이 두 번째로 큰 격변은 대홍수로 덮었던 물이 물러갈 때인데, 전 지구적으로 단 한번에 지각의 수직적 융기와 침강이 발생하는 과정이다. "옷으로 덮음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렛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시 104:6–9).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본다면 지구가 물에 잠겨 홍수가 일어난 때를 기초하여 격변적인 판구조론을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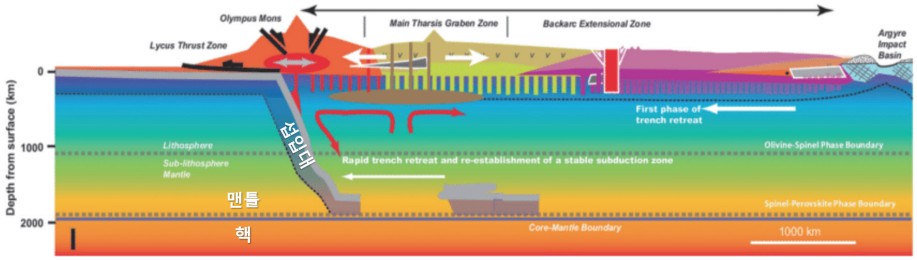
만약 격변적 판구조론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과학적 증거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 첫 증거로 마치 퍼즐처럼 서로 맞추어 지는 조각난 여러 대륙들이다. 이에 대하여 초대륙이 붕괴했을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한 첫 번째 과학자는 스나이더(Antonio Snider, 1802–85, 지리학자, 프랑스)인데, 대륙의 붕괴 원인을 성경의 대홍수로 꼽은 것은 흥미롭다. 동일과정설이 등장하기 이전이기에 이런 해석이 가능했을 것이다. 다음의 증거로 볼 것은 대륙과 해저에서 암석의 차이가 현저하게 다른 점이다. 대륙에서는 (소위 진화론자들이 구분하는) 고생대 중생대 퇴적암층과 함께 수많은 해양생물의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이들은 전 지구적으로 침식된 선캄브리아기 기반암 위에 평평하게 놓여있다.

반면에 해저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대양저에서 발견되는 퇴적물이나 현무암은 그 순서상 (진화론자들이 구분하는) 중생대보다 오래되지 않았다. 이를 성경적으로 본다면 전 대륙을 덮었던 대홍수는 홍수 이전의 해저를 사라지게 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모든 지질학자들은 전 지구가 한 때 물에 잠겼다는 것과 함께, 대부분 오래된 해저가 지구 안으로 "삼켜졌다(swallowed up)"는 해석에도 동의한다. 단지 남아있는 의견의 불일치는 그 사건이 '길었느냐 아니면 짧았느냐' 하는 기간에 대한 부분일 뿐이다.

격변적 시나리오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차갑고 부서지기 쉬운 해저 지각은 아래 놓인 뜨거운 맨틀 암석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가라앉으려고 한다. 여기에

는 1년안에 모든 맨틀을 뒤엎고 대륙을 분산시킬 만한 중력 위치에너지가 존재한다. 비록 맨틀이 단단한 암석이지만 지각을 구성하는 조암광물인 규산염 광물은 열응력[1] 으로 인해 아주 쉽게 약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대륙이 광범위하게 맨틀 속으로 섭입된다면, 100km 이상 두께의 거대한 해저 판(slab)이 핵과 맨틀의 경계까지 '돌처럼 가라앉는' 폭주 효과(runaway effect)가 전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런 지구 전체가 뒤엎어지는 과정으로 인해 대륙은 끌려가듯이 맨틀 위에 떠서 운반되었을 것이다.

최근에는 3차원 모델링을 통해 현실적인 초기 조건과 가장 적합한 물리학적 방법을 사용하므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격변적 판구조론이 설명된다. 지구 내부를 지진파를 통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해양 암석권의 차가운 거대한 판들이 모든 섭입대 2,500km 아래에 즉 맨틀–핵 경계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얻게 했다. 만약 이 판들이 수천만 년의 것들이라면, 맨틀 바닥에서 발견되는 판들이 이와 같이 뜨거워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수천 년의 세월로는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판구조론, 차가운판

격변적 모델에 대하여 두 가지의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오래된 지구〉 책의 저자는 격변적 판 섭입 과정에서 방출되는 마찰열은 바다를 끓게 만들어 없애 버리기 때문에 격변적 모델을 반대했다. 그러나 이런 반론은 정적인 판의 움직임에 적합한 마찰 계수를 적용할 경우에만 해당되며 동적인 모델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고려해보아야 한다. 실제로 섭입대의 단층면은 슈도타킬라이트[2] 라고 하는 마찰에 의해 녹기 쉬운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지판이 섭입되는 동안에 훌륭한 윤활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방법으로 마찰열을 몇 배나 줄일 수 있다. 물론 이 '열'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자연 과정만으로 간단하게 설명될 문제는 아니다.

1) 열응력(thermal stress): 물체는 열을 받으면 그 체적이 증가하는 반면 냉각이 되면 반대로 체적이 감소하지만, 물체를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구속하게 되면 물체 내부에는 이 구속에 저항하려는 내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저항력을 열응력이라고 부른다. 만약 물체가 구속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물체 전 영역에서 온도분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부에 열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2) 슈도타킬라이트(pseudotachylyte): 암맥에서 관찰되는 결정되지 않은 유리질의 암석이며, 대부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암석 조각을 포함한다. 상대적인 운동인 단층의 마찰이나 대규모 산사태 등의 충격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

두 번째 반대 의견은 GPS 측정을 통해 얻은 판 운동 속도와 남미와 아프리카 간의 거리에서 파생된 평균 속도 간의 방사성 연대측정 결과의 일치를 주장한다. 이것은 1년 동안 2–4cm 이동되는 느린 속도를 입증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오직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는 화산섬으로서 지판이 벌어지는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실험하기 좋은 지역이다. 한 비평가는 측정된 확장속도와 암석 사이의 불일치를 "아이슬란드 지질학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지각 운동으로 과거 또는 미래를 수천만 년에서 수억 년에 추정하는 것은 분명히 위험한 시도이다"는 말까지 남겼다. 또한 대부분의 해저 연대측정은 칼륨(K)–아르곤(Ar) 측정법을 사용하는데, 이 암석 연대 측정법은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제한된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외에 넓은 시야를 가진 훌륭한 지질학자들도 있다. 우리는 데렉 에이저(Derek Ager) 같은 지질학자가 격변적 퇴적 작용에 대하여 알려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이고 또 존 바움가드너(John Baumgardner)와 함께한 여러 지질학자들의 노력을 통해 대홍수를 격변적 판구조론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놀라운 방법대로 일하신다.

Bill Hoesch
M.S. Geology

번역 / 서은주 ITCM 수료자

• 이 글은 〈그랜드캐니언, 오래된 지구의 기념비〉의 '11장 – 판구조론: 우리의 쉬지 않는 지구'에 대한 반론 글이다.

참고문헌

–"Crustal spreading in Iceland: The dilemma between spreading rate and rock age," by A. Hjartarson, in: Hjartarson, Arni, 2003. In: The Skagafjörður Unconformity, North Iceland, and its Geological History. Geological Museum, U. of Copenhagen. PhD thesis, p. 109-124. https://pdfs.semanticscholar.org/c01d/74eadc7f7374e5dd60596657c1a7824145d6.pdf
– Derek Ager, The Nature of the Stratigraphical Record, London: Wiley, 1973.
– Dziewonski, A.M. and Woodhouse, J.H., Global images of the Earth's interior, Science 236:37–48, 1987
– "Plate tectonics: a paradigm under threat," by David Pratt. Pratt (2000), Journal of Scientific Exploration, 14 (3): 307-352.
– "Plate Tectonics: Our Restless Earth," by Bryan Tapp and Ken Wolgemuth, in Chapter 11 of The Grand Canyon: Monument to an Ancient Earth, Carol Hill, Gregg Davidson, Tim Helble, and Wayne Ranney, editors,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2016.
– Strom, R.G., Schaber, G.G., and Dawson, D.D., The Global Resurfacing of Venus,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99(1994) pp. 10899-10926.
– "Superfaults and pseudotachylytes: evidence of catastrophic earth movements," by Clarey, T., Austin, S., Cheung, S., and Strom, R., Proc. 7th International Conf. on Creationism. Pittsburgh: Creation Science Fellowship, 2013.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10/4 ~ 10/11, 2018

이 기사는 창조과학탐사에 참여한 자들에 의한 간증 소감문으로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 www.hisark.com 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믿음은 없었던 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기회가 되서 가족과 참여하게 되었고 투어동안 이재만 선교사님의 강의와 설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정말 많이 알게 되었고 믿음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본래 소극적이고 변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았는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면서 지금보다 나은 것들을 꼭 주신다는 확신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보배로운 교회/이은찬〉

맹목적인 신앙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물을 볼 때 본질적인 현상만 쫓았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너무나 당연하듯이 생각했던 고정관념과 지식이 성경 앞에 고꾸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큰은혜교회/박준영〉

노아 방주가 박스였다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계획하셨음을,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유일한 하나의 "문"이 예수님이었다는 것. 그곳에 있었던 8명만이 구원을 받은 것을 통해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 특히 가족 구원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고 전도에 대해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창조과학탐사가 복음, 구원, 전도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과 성경이 정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MM선교회/임인순〉

이번 창조과학탐사는 제게 큰 유익을 준 것이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큰 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에서 출발한 사상들이 인생에 대한 저평가와 더불어 그런 눈으로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악하고 허망한 구조적인 악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 때부터 시작된 구속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이 더 확장되고 깊이가 더해져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화론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나가는 비성경적인 사상이 물일 듯 번져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실정에서 교회가 이제 창조론에서 비롯된 복음의 이해를 바탕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가족들에게 창조의 세계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김영배〉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창조의 증거와 살아계심을 느끼고 갑니다. 세상 거짓의 새로운 눈을 주셨고 성경을 다시 읽으며 매일 새롭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녀에게도 그 성경을 잘 전달해야겠다는 결단을 해 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김광석〉

이번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가장 좋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리고 죽다 살아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이 감동 잊지 않고 이 창조의 하나님을 전하며 살도록 늘 깨어 노력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온누리교회/이지은〉

창조과학탐사에 오기 전 2주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호텔 근처에 교회는 많았지만, 선교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안에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관광지로 바뀐 곳은 내부 입장을 위해 돈을 내야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께서 계속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음이 좋았다'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유럽교회에서 느낀 것과 창조과학탐사에서 느낀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청년부 목사님과 리더들, 조원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보배로운교회/이희찬〉

이번 탐사를 가기 전 yellow stone에 다녀왔었습니다. 돌, 바위 산, 길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퇴적, 침식, 등..)만들어졌는지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들로 머리 속에 그렸었는데 이번 탐사를 통해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지형, 세상의 언어가 바뀌었는지 이해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대학교에서 다시 공부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교회/이효찬〉

사역일정

2019/2020 ACT Schedule

11/18-22	창조과학세미나 (대만국제은혜신학대학원), 이재만
12/4	창조과학세미나 (충현선교교회), 이재만
12/6-8	창조과학세미나 (미네소타 다하나교회), 이재만
2020년	
12/30-1/2	창조과학탐사 (21차유학생창조과학탐사), 이재만
1/13-18	창조과학탐사 (일산산성교회), 이재만
2/10-17	창조과학탐사 (대구화원교회), 이재만
2/10-14	창조과학탐사 (일산대림교회), 김낙경
2/18-24	창조과학탐사 (생터성경사역원), 이재만
4/4	창조과학세미나 (샌디에고새소망교회), 이재만
4/7-14	창조과학탐사 (천안아산제자교회), 이재만
4/14-17	창조과학탐사 (뉴욕충신교회 EM), Bill Hoesch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ACT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